

## 한영 다큐멘터리 번역의 내러티브 리프레이밍 — EBS 「천불천탑의 신비, 미안마」를 중심으로

조 윤 실  
(부산대)

### 1. 서론

다큐멘터리는 사실적인 것(actualities)을 소재로 하지만 있는 그대로의 기록이 아니라 현실 세계에 대한 ‘창조적 처리(creative treatment)’이다(Grierson 1971). 이는 다큐멘터리가 세계에 대한 하나의 ‘재현’이며 그 재현은 세계에 대한 특정한 하나의 시각을 견지한다(Nichols 2005; 88)는 점을 말한다. 제작자는 다큐멘터리를 통해 고유한 하나의 관점과 프레임(frame)으로 현실을 제시한다. 이때 다큐멘터리가 다른 문화권으로 수출되어 번역되면 다큐멘터리 원제작자의 시각과 목소리는 목표문화권이나 방송사의 규범에 따라 리프레이밍(re-framing)된다. 이 과정에서 이야기의 구성과 전개 방식을 말하는 다큐멘터리의 내러티브(narrative)는 재구성되고 내레이션(narration)은 다시 쓰여진다. 본 연구는 목표문화권에 따른 한영 다큐멘터리 번역 양상을 내러티브 분석과 프레이밍 개념

을 적용해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내러티브 분석 이론과 프레이밍 개념은 분석 틀로서 번역학 연구에서 활발하게 사용되었다. 내러티브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주로 문학 텍스트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으며(박종진 2016; 안미현 2016; 이지영 2016; Dubbati 2018; Kim 2017; Lee 2016) 내러티브와 프레이밍의 관점에서 살펴본 연구는 뉴스 텍스트를 대상으로 한 연구(강수정 2017; 김가희 박은숙 2014; 김기영 2013; 김순미 2013; Nael 2017; Qin & Zhang 2018; Wu 2018)가 주를 이루었다. 문학 텍스트나 뉴스 텍스트뿐만 아니라 영상물 텍스트 역시 목표문화권이 달라지면 리프레이밍되고 내러티브가 달라질 것으로 유추할 수 있으나 이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드문 실정이다. 이에 영상물을 대상으로 한 내러티브 분석 연구 및 리프레이밍 적용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다큐멘터리에 번역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상태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영상물 중 다큐멘터리를 연구대상으로 삼아 번역 시 목표 문화권에 따라 어떻게 원천텍스트(Source Text: 이하 ST, 목표텍스트 Target Text: 이하 TT)의 내러티브가 리프레이밍되고 이에 따라 내러티브 구성과 내용에는 어떤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더불어 본고의 목적은 번역물의 도덕성이나 진실성을 평가하고자 함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한다. 내러티브가 수용자 측면에서 리프레이밍 될 수 있다는 것은 기본 전제로 하고 있으며 본고는 내러티브가 리프레이밍되는 현상 자체를 분석하고 이유를 밝히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함을 밝혀둔다.

본 연구는 EBS 다큐멘터리 「천불천탑의 신비, 미안마」 시리즈 2편과 그 번역본 2편을 연구 대상으로 한다. 「천불천탑의 신비, 미안마」 시리즈는 2015년 EBS 「다큐프라임」 프로그램에서 방송되었고 같은 해 미국 스미스소니언 채널(Smithsonian Channel)로 수출되어 미국에서 번역된 후 방송되었다. 연구대상 데이터는 ST와 TT의 시리즈 총 4편과 각 에피소드의 타이틀, 도입부에 해당하는 프롤로그 영상, 이후의 본 영상과 내레이션이다. 베이커의 내러티브 분석 모델(Baker 2006)과 프레이밍 개념(Goffman 1974)을 분석 틀로 적용해 한영 다큐멘터리 번역 양상을 살펴보았다.

## 2. 기존 연구 동향

### 2.1. 다큐멘터리와 내러티브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은 ‘진실’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에 대한 하나의 해석이나 관점을 전달한다(최양목 주창운 2003: 97). 다큐멘터리 제작자는 사실을 근거로 해서 하나의 시각이나 주장을 제시한다. 그래서 다큐멘터리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담겨 있는 해석이나 시각이 바람직하다는 믿음(Nichols 2001/ 2005)을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사실적 요소를 어떤 구성으로 엮어서 타당성 있는 내러티브 전개 문제 자체가 다큐멘터리의 핵심이라 하겠다. 이에 관해 원용진은 ‘다큐멘터리는 이야기 전개 방식, 즉 하나의 이야기체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거치며 ‘선택과 배열’의 과정을 거쳐서 꾸며졌다’(1996: 159~162)고 하면서 내러티브의 중요성을 지적했다. 이는 다큐멘터리가 제작자의 시각과 주제라는 의미전달의 수단으로써 특정한 서사구조, 즉 내러티브를 갖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종수(2000)는 다큐멘터리 내러티브 분석에 대해 여러 사건들을 하나의 연속된 이야기로 조직화하는 텍스트적 장치와 전략을 밝혀내는 작업이라고 정의했다. 지금까지 다큐멘터리 내러티브 분석과 이데올로기 문제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이종수는 모든 역사기록이 선택성과 서사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하면서 역사다큐멘터리가 대부분 산발적인 사건들을 연결하여 의미를 도출해내는 과정으로 구성되는데 이 과정에서 내러티브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1999, 2000). 김훈순(2000)은 역사 사실의 재현은 현대적 해석이 덧붙여진 것인데 이러한 재현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제작자의 선택과 배열의 결과물인 내러티브의 구성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한편 김균 정규찬(2003)은 다큐멘터리의 역사 재현방식과 사회 문화 정치적 의미를 조명한다. 또한 정재엽 최낙진(2010)은 동일한 소재를 다룬 다큐멘터리가 중앙방송과 지역방송이라는 방송 주체에 따라 서사구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했다. 중앙방송의 경우 역사적 사실과 한반도 내에서의 역할에 초점을 맞춘 반면 지역방송은 지역주민들의 역사적 자부심과 그들의 책임감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기존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은 제작자의 관점을 효과적으로 전달하

기 위한 하나의 전략으로 내러티브 구성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이 내러티브 구성 방식은 다큐멘터리가 제작된 사회 문화 정치적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

문화 연구의 측면에서 보면 모든 텍스트의 사회 현실 구성은 한 사회의 이데올로기 구조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Hall 1982; Hartely 1982). 이에 따르면 TV 다큐멘터리 역시 능동적인 현실 구성의 한 방법이며 TV라는 매개체를 통해 사회적으로 이루어지는 담론과정의 일부이다. 푸코(Foucault 1971)는 담론을 ‘지배집단이 피지배 집단에 특정 지식, 규율, 가치를 강요함으로써 진리의 장을 구성하는 체계’라고 정의하였다. 담론은 의도를 담고 있고 일정한 방향성을 갖고 만들어지기 때문에 사회적 효과를 낳게 되고 이로 인해 소외된 집단이 생기기도 하며 동시에 혜택을 받는 집단이 생기기도 한다. TV를 포함한 미디어 역시 이런 담론이 생산되는 장소이며 TV 다큐멘터리는 상식적 지식, 집단적 기억, 보편적 담론의 생산을 통해 권력이 지속적으로 표현, 행사, 거부되는 지점이다(김균 정규찬 2003). 결국 TV 다큐멘터리는 사회 담론에 의해 생산되고 동시에 사회 담론을 생산하는 매체가 되는 것이다. 이는 번역의 관점에서 목표문화권이 달라지게 되었을 때 텍스트가 갖고 있는 담론도 달라지게 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러한 점에서 ST와 TT의 비교분석 연구는 각 사회 담론의 차이를 들여 들여다볼 수 있는 하나의 장치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다큐멘터리의 담론적 접근은 연구대상이 텍스트에 한정되지 않고 TV 규범, 매체적 특성, 역사성, 수용자 등을 포함한 다양한 요소를 함께 다룬다(원용진 1999). 김균 정규찬(2003) 역시 한국 TV 다큐멘터리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면 다큐멘터리의 장르 분석 및 TV 매체 특성의 이해와 더불어 한국 사회의 맥락적 지식이라는 조건이 충족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의 ST와 TT를 비교할 경우에도 분석의 범주에 영상과 내레이션 텍스트뿐만 아니라 소속된 문화권의 사회 문화적 관습, 시청자들의 일반적인 가치관, TV 규범 등 여러 요소를 모두 고려해서 텍스트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은 제작자의 관점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으로 내러티브 구성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 이는 사회 문화 정치적 의미를 담고 있다. 특히 역사다큐멘터리는 현재의 시각에서 과거를 재구성, 재정의하는 과정으로 내러티브 분석을 통해 사회의 문화와 정치,

이데올로기적 의미까지 논할 수 있다. 그런데 다큐멘터리가 다른 문화권으로 수출되면 원작의 내러티브 구성방식이 목표문화권의 시청자들에게는 기대했던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특정 문화권의 시청자들에게 설득력을 갖는 구성이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도 타당성 있게 시청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는 다큐멘터리가 수출되면 목표문화권의 시청자들에게 설득력을 갖기 위해 번역 과정에서 내러티브 구성에 변화를 줄 것이라는 가정으로 시작한다. 본고에서는 한국에서 제작하고 미국에서 번역되어 방송된 아시아의 역사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연구대상으로 삼아 분석해보고자 한다. 한국인의 시각으로 구성된 다큐멘터리가 미국 사회에서 어떻게 바뀌어 방송되었으며 번역과정에서의 이러한 변화가 어떤 사회 문화 정치적 의미를 시사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 2.2. 내러티브 분석 이론과 프레임링 개념

현대 서사 담론의 중심 개념인 내러티브에 대해 쥘레트(Genette 1972)는 ‘말이나 글을 통한 서사 텍스트 자체’라고 정의했고 프린스(Prince 1987)는 ‘하나 이상의 사실적 혹은 허구적 사건의 결과와 과정, 대상과 행위, 구조와 구조화로서의 상세한 이야기’라고 정의한다. 즉 내러티브는 사실적 혹은 허구적 사건을 시간이나 인과 구조에 따라 이야기 형식으로 구성, 서술하는 담화 양식을 말한다.

베이커는 번역이 가치 중립적이며 투명한 행위가 아니라 번역이 이루어지는 두 사회 간에 권력의 불균형과 가치관의 충돌로 인한 결과물(Baker 2006: 1)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번역에 관련된 갈등의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 내러티브 이론을 도입했다. 베이커는 내러티브가 ‘세상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일 뿐 아니라 세상을 구성하는 요소’라고 정의하면서 ‘내러티브는 사회 조직의 모든 계층에서 갈등을 조장, 유지, 중재, 재현하는 중요한 도구’라고 설명한다. 베이커가 요약한 내러티브의 속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관계성(relationality)이다. 분리된 사건들은 내러티브 안에서 연결 관계를 갖고 전체를 구성하는 일부가 되었을 때 비로소 의미를 가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번역가는 한 단어를 번역할 때도 전체 내러티브의 구성과 흐름을 생각하면서 번역하는 치밀함이 필요하다.

둘째는 인과적 플롯(temporal emplotment)으로 행위자가 일련의 사건 중 특정한 것에 비중을 두어 플롯을 구성한다는 것을 말한다. 인과적 플롯은 일련의 사건의 원인을 규명해주어 다음에 취할 행동을 설명해준다. 영상물의 경우 편집을 통해 인과적 플롯의 다양성을 피할 수 있으며 결과물은 나름의 인과관계를 갖고 내러티브가 형성되어 타당성과 설득력을 갖는다. 셋째는 선택적 전용(selective appropriation)이다. 이는 모든 내러티브가 선택과 집중의 결과이며 일관된 내러티브를 수립하기 위해서 특정 경험요소들을 불가피하게 선택하고 제외시키는 것을 말한다. 넷째는 시간성(temporality)으로 내러티브가 특정 시공간에 위치하게 된다는 특성을 말한다.

한편, 베이커는 번역 관련 선택들을 분석하기 위해 내러티브 이론과 함께 프레임링 개념을 번역학에 도입했다. 번역가의 역할과 관련이 있는 적극적(active) 의미로서의 프레임은 “특정 관점을 취하기 위한 의식적이고 전략적인 움직임(strategic move)”(Baker 2006: 106)이다. 프레임의 구축(frame building)은 선택, 강조, 축소, 배제 등을 통해 대상의 특정 속성이나 현실의 특정 측면을 두드러져 보이게 함으로써 현실 문제를 정의하고 인과관계를 해석하며 도덕적 평가를 내리거나 해결책을 제시하는 현실의 재구성 과정을 의미한다(Entman 1993, 사회만 외 2005: 7 재인용). 베이커가 제시한 프레임링 과정 중 본고에서 구체적으로 다룰 프레임링 방법은 프레임 모호성, 선택적 전용, 이름 붙이기이다(Baker 2006).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프레임 모호성(frame ambiguity)’은 같은 사건도 다른 주체의 이해관계에 따라 다르게 프레임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동일한 사건을 두고도 주체에 따라 다른 프레임을 통해서 사건을 들여다보고 이해한다는 것이다. 이는 원천 텍스트에서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목표 문화권의 이해관계나 리에 맞는 프레임을 적용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프레임링의 결과는 연관 당사자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번역가는 정의가 모호한 상황을 더 명확하게 할 수도 있고 다른 방향으로 변화를 줄 수도 있으며 더 모호한 상황으로 만들 수도 있다(Baker 2006: 107).

두 번째 ‘선택적 전용(selective appropriation)’은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원문에 포함된 내러티브의 특정 부분을 강화, 약화, 미화하기 위해 생략, 혹은 추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텍스트의 전용”(Baker 2006: 114)을 일컫는다. 거

시적으로 보면 한 번역 기관에서 원하는 텍스트를 선택하여 번역하는 경우를 말하고 미시적으로는 한 텍스트 내에서 특정 부분을 선택하여 강조하거나 생략하여 번역하는 경우를 들 수 있겠다(김순미 2013: 74).

세 번째 ‘이름붙이기를 통한 프레임링(framing by labelling)’은 “특정 사진적 어휘나 표현을 사용해서 사람, 장소, 단체, 사건 혹은 내러티브의 다른 요소들에 정체성을 부과하는 추론적 과정(discursive process)”(Baker 2006: 122)이다. 예를 들어 어떤 장소에 대한 이름이 여러 개가 존재한다면 이름마다 다른 프레임을 갖고 있고 어떤 명칭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특정 내러티브가 강화 혹은 약화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본고의 ST에 등장하는 ‘미안마’를 TT에서 ‘버마’로 바꾸어 번역하는 경우가 한 예가 될 수 있는데 이는 이후의 분석결과에서 자세히 다루어보겠다.

번역학 분야에서 내러티브와 프레임링에 관련한 연구는 뉴스와 문학 텍스트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먼저 뉴스텍스트를 대상으로 한 연구를 살펴보면 김순미(2013)는 권력의 역학관계를 번역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로 보았다. 그는 국가, 혹은 집단 간 이해관계의 차이가 번역 텍스트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뉴스텍스트를 통해 살펴보았다. 장(Zhang 2013)은 편역된(transediting) 뉴스 제목을 평가 이론(Appraisal Theory)을 통해 영어 원문과 중국어 번역본을 비교했다. 김가희 박은숙(2014)은 미군 성폭력 사건 관련 내외신 기사들의 제목과 내러티브를 비교 분석했다. 김기영(2013)과 킨 & 장(Qin & Zhang 2018)은 국제뉴스의 번역과정에서 목표 독자들을 위해 내러티브가 리프레이밍된다고 주장했다.

문학 텍스트를 대상으로 한 연구를 살펴보면 박종진(2016)은 「행복한 왕자(The happy prince)」의 번역본인 「왕자와 제비」를 연구대상으로 삼아 영어 원작(Oscar 1888), 일본어 중역판(齋藤佐次郎 & 横山壽篤 1920), 방정환의 번역판(방정환 1928)을 비교 분석했다. 그는 방정환의 도입부와 결말 부분의 서사 변형이 일제 식민지라는 제한된 근대 조선의 문화 환경에서 구사했던 글쓰기 방식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리(Lee 2016)는 「장화홍련전(전규태 1995)의 축어역(Jeong 1952)의 내러티브 변화를 분석했다. 한편 문학 텍스트의 주변 텍스트를 분석 대상으로 하여 내러티브의 리프레이밍을 분석한 연구(이지영 2016), 주변 텍스트와 텍스트를 모두 분석한 연구(Kim 2016)도 있었다. 그리고

두바티 & 아부다예(Dubbati & Abudayeh 2018)는 조 사코의 그래픽소설<sup>1)</sup>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비망록(Footnotes in Gaza)』의 아랍어 번역본 연구를 통해 팔레스타인-이스라엘 갈등의 내러티브가 번역본에서 어떻게 프레임, 리프레이밍 되었는지 살펴보았다.

기존에 연구가 이루어진 문학 텍스트나 뉴스 텍스트뿐만 아니라 영상물 텍스트 역시 목표 문화권이 달라지면 리프레이밍되고 내러티브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영상물 시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며 이와 비례하여 영상 번역의 가치와 중요도가 크게 상승하고 있지만 영상물을 대상으로 내러티브와 프레임링을 연구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다큐멘터리에 번역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상태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영상물 중 다큐멘터리를 연구대상으로 삼아 번역 시 목표 문화권에 따라 어떻게 내러티브가 리프레이밍되고 이에 따라 내러티브 구성과 내용에는 어떤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 3. 분석대상과 연구방법

#### 3.1. 분석대상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천불천탑의 신비, 미안마」다큐멘터리는 EBS 채널의 ‘다큐프라임’ 프로그램에서 2015년 5월 18일부터 20일까지 총 3부작으로 방송된 시리즈물이다. 세계 최초로 미안마 문명사를 담은 다큐멘터리이며 제작이 완료되기도 전에 미국 스미스소니언 채널<sup>2)</sup>에 국내 2D 다큐멘터리 사상 최고가

- 1) 그림(graphic)과 소설(novel)의 합성어로, 만화와 소설의 중간 형식을 취하는 작품이다. 일반 만화보다 철학적이고 진지한 주제를 다루며 복잡한 이야기 구조 및 작가만의 개성적인 화풍을 드러내는 것이 특징이다. 월간지 등에 짧게 연재되는 만화와 달리 주로 페이지 수가 많고 스토리에 완결성을 가진 단행본 형식으로 발간된다.
- 2) 미국 스미스소니언 채널은 박물관으로 유명한 스미스소니언 재단과 미국 CBS가 합작해 설립한 다큐멘터리 전문 채널이다. HD 5.1 채널로만 방송하는 고급 다큐멘터리 채널이며 엄격한 선정 기준과 프로그램 검증 작업으로 주로 BBC, NHK, ZDF 등 세계적인 공영방송사들과의 공동 작업을 해왔다.

에 판매돼 화제가 되었다(이춘우 2015). 또한 이 프로그램은 아시아-태평양 방송개발기구(Asia-Pacific Institute for Broadcasting Development, AIBD) 올해의 TV 프로그램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천불천탑의 신비, 미얀마는 미얀마 불교 조형물의 화려한 예술성을 수려한 영상과 서사적 스토리로 풀어내며 그동안 베일에 가려져 있던 미얀마 문명의 신비로운 모습을 소개한다. 그리고 고대 통일 제국 버간 왕조를 통해 아시아의 역동적이고 찬란했던 역사의 순간을 보여준다. 각 에피소드의 내용을 살펴보자면 1부는 황금으로 둘러싸인 미얀마 3대 보물의 비밀을 파헤치고 2부는 버간 왕조의 종교개혁 진행 과정과 결과를 재연과 CG 효과로 영상에 담아냈다. 3부는 제작과정 촬영 필름으로 1,2부만 번역되어 방송 되었으므로 연구대상에서는 제외되었다.

다큐멘터리를 구매한 미국 스미스소니언 채널은 스미스소니언 측의 비용으로 인터내셔널 버전을 재제작하여 미국 외 지역에 판매한다는 내용으로 계약을 맺었다. 따라서 본 연구대상은 아시아 역사에 대한 동양의 시각이 미국을 비롯한 서구의 목표문화권에서 어떤 방식으로 내러티브가 리프레이밍 되었는지 확인해볼 수 있는 좋은 사례라 할 수 있겠다.

미국 방송본의 영상 말미에 엔딩 크레딧과 함께 제작 참여자들의 명단이 제공된다. 엔딩 크레딧을 통해 영상 제작은 한국의 EBS에서 담당했고 제작의 후반 작업에 해당하는 포스트 프로덕션 과정이 스미스소니언 채널에서 다시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포스트 프로덕션은 편집과정으로 감독의 지휘하에 편집자가 기술적인 측면을 담당하여 작업이 이루어진다. 제작자가 관점이나 주제에 따라 전체적인 내러티브의 방향을 제시하면 이에 맞추어 내러티브의 구성을 비롯한 내용이 편집된다. 연구대상의 세부 정보는 아래 표와 같다.

〈표 1〉 연구대상 세부정보

	제목	방송사	국가	분량
ST	<천불천탑의 신비, 미얀마> -황금의 전설(1화) -버간, 위대한 왕국의 꿈(2화)	EBS	한국	50분
TT	<Wonders of Burma> -Shrines of Gold(ep1) -Myths and Magic(ep2)	Smithsonian Channel	미국	50분

### 3.2. 분석방법

연구 대상 선정은 구글 검색에서부터 시작했다. 먼저 한국 다큐멘터리의 수출 사례 중 서구문화권으로 수출된 경우를 검색했다. 목표문화권에서의 내러티브 리프레이밍 현상을 보고자 했으므로 수출용으로 제작되어 한국에서 번역 작업이 이루어진 경우는 연구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한 수출되었으나 목표문화권에서의 방송용 제목을 알 수 없어 검색이 불가능하거나, 제목은 알 수 있으나 필자가 온 오프라인으로 영상에 접근할 수 없는 프로그램도 제외했다. 최종적으로 2부작 프로그램 두 편, 1부작 프로그램 한 편으로 범위가 좁혀졌다. 「천불천탑의 신비, 미얀마」는 한영 다큐멘터리의 서구문화권 수출 사례 중 온라인으로 접근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며 목표문화권(미국)에서 번역이 이루어진 경우이다. 본고의 연구대상 외 나머지 프로그램 두 편도 전사작업은 모두 이루어졌으나 소논문의 지면의 제한과 논의의 일관성을 위해 본고에서는 2부작 한 프로그램만 다루기로 결정했다.

ST에 해당하는 「천불천탑의 신비, 미얀마」프로그램은 EBS 홈페이지에서 구매한 후 직접 전사해서 텍스트 분석에 이용했다. TT인 ‘Wonders of Burma’ 1편과 2편은 애플사의 아이튠즈 스토어에 미국 계정으로 접속하여 TV 프로그램을 검색해 구매했다. 프로그램을 재생하면서 자막 캡션을 활성화시켜 직접 전사했다. 문서화에 사용한 프로그램은 한글 프로그램이며 내레이션의 시작 부분에 타임코드를 기재했고 화면해설도 함께 정리했다. 영상 부분 비교 작업은 두 대의 컴퓨터로 각 에피소드를 동시에 재생하면서 영상의 순서와 길이를 확인했고 문서화한 텍스트의 내용을 참고했다. 분석 과정에서 인터뷰 부분이 크게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인터뷰만 정리한 파일을 만들어 ST와 TT를 비교 대조했다.

### 4. 분석 결과

ST와 TT의 타이틀, 영상, 내레이션, 프롤로그를 비교 분석한 결과를 크게 세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정리할 수 있었다. 먼저 ‘미얀마’ 국호를 TT에서 ‘버

마'로 변경해 기술한 부분에 대해서 다루고 다음으로 TT에서 '신화'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첨가된 것에 대해 분석해본다. 마지막으로 ST와 TT의 인터뷰 부분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데 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4.1. 이름 붙이기를 통한 프레이밍: 미얀마 vs. 버마

EBS에서 「천불천탑의 신비, 미얀마」라는 제목으로 방송되었던 다큐멘터리는 미국에서 'Wonders of Burma(버마의 신비)'라는 제목으로 번역되어 방송되었다.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제목뿐만 아니라 전체 내용에서 ST의 '미얀마'는 거의 '버마'로 변경되었으며 이는 '이름 붙이기를 통한 프레이밍'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다.

'버마'라는 국명은 영국이 버마를 1886년 영국령 인도에 편입시키면서 공식 지명으로 지정되었다. 이후 1988년 미얀마의 신군부가 쿠데타로 집권하면서 국명을 '버마'에서 '미얀마'로 바꿨다. 한국은 1991년 정부 언론 외래어 심의 공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미얀마'로 표기하고 있고 유엔도 '회원국이 원하는 대로 부를 수 있다'는 원칙에 따라 '미얀마'로 부른다. 하지만 미 국무부는 "1990년에 민주적으로 선출되기도 활동하지 못한 의회(야당)는 군부의 국명 변경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민주적 야당도 '버마'라는 명칭을 계속 쓰고 있다"(김기범 2012)고 하면서 '버마'의 사용을 고수하고 있다. 즉 미국은 쿠데타를 통해 장기 집권하고 있는 군부의 일방적인 국명 변경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미얀마'를 사용하지 않고 '버마'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표 2> '미얀마'와 '버마'의 출현 빈도 비교

	ST	TT
미얀마	68	5
버마	0	72

위의 <표2>3)를 보면 한국어 ST에서는 '버마'라는 표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고 '미얀마'만 68번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영어 TT에서는 5번

을 제외하고 모두 '버마'라는 국명을 사용했다. TT에서 사용된 '미얀마' 5번 중 2번은 각 회차 초반(1화 3분 27초, 2화 1분 42초)에 '현재 '버마'는 '미얀마'로 불린다'라고 소개하면서 사용되었고 나머지 3번은 재연 장면에서 미얀마 배우들의 대사에서 나온 부분이다. 미국은 현재 대부분의 나라가 '버마' 대신 '미얀마'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으며 미얀마인들조차도 '미얀마'라고 부르는데도 정치적 신념으로 '버마' 사용을 고수하는 것이다.

'버마'를 계속 사용하겠다는 미 국무부의 정치적 결정은 다큐멘터리의 번역에서 어휘 선정뿐만 아니라 전체 내러티브에도 영향을 미친다. '버마'라는 국호를 사용함으로써 '미얀마'를 사용했을 때와는 동일한 국가의 다른 정체성이 부각된다. TT에서는 원문에 없는 '정변(political upheaval)', '탄압(repression)', '정치적 혼란(political turmoil)'이라는 표현이 추가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이름 붙이기를 통한 프레이밍' 효과로 설명할 수 있다. 다음의 예문을 살펴보도록 하자.

<예1>

TT: First, it was a land of Kingdoms, then a land of political upheaval and repression, but through it all, Burma has nurtured a remarkable culture of worship, with a landscape like a Buddhist wonderland—temples, stupas, statues. (1화)

(처음에 이곳은 왕국이었고 다음엔 정치적 격변이자 억압의 땅이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버마는 놀라운 종교 문화를 꽃피웠고 사원과 불탑, 불상이 가득한 비현실적인 풍경을 보여 준다 - 필자의 역)

<예2>

TT: To the rest of the world Burma is known more for political repression than religious expression but set foot in this country and stand in awe at the scope and depth of Buddhist culture. (2화)

(다른 나라에 버마는 종교적 표현보다는 정치적 억압으로 더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 나라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그 불교문화의 규모와 깊이에 경외감을 느끼게 된다 - 필자의 역)

3) 'Myanmar'의 검색어는 'Myanmar'이고 'Burma'는 'Burma'와 형용사 형태인 'Burmese'도 검색어에 포함시켰다.

위의 <예1>과 <예2>의 문장은 TT 1화와 2화의 내레이션 첫 문장이다. 모두 ST에는 없고 TT에서 추가된 내용으로 1편의 <예1>에서 ‘정변(political upheaval)’, ‘탄압(repression)’, ‘정치적 혼란(political turmoil)’이라는 표현이 등장했고 2편의 <예2>에서는 ‘정치적 탄압(political repression)’이 사용되었다. 위와 같은 표현이 프로그램의 타이틀이 나오기 전에 보여주는 프롤로그 첫 문장에 언급되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다큐멘터리의 프롤로그는 프로그램에서 맨 처음 나오는 영상으로 전체 내용의 핵심을 추출해 구성한 부분이다. 이 도입부는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맥락을 암시하기 때문에 시청자가 시청 여부를 결정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Rosental 1997;149). 정치 다큐멘터리가 아닌 역사 다큐멘터리의 도입부 첫 문장에 국명과 나란히 ‘정변’과 ‘탄압’과 같은 단어가 언급된 사실은 목표사회에서 ‘버마’가 어떻게 프레이밍 되어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겠다.

한국어 ST는 1화와 2화 모두 재연장면으로 시작한다. ST의 첫 문장은 각각 ‘옛날 옛적에 아주 오랜 옛날에 있었던 일이다(1화)’, ‘1084년 그날, 왕국은 새로운 왕을 맞았다(2화)’로 ‘버마’나 ‘미얀마’ 혹은 정치적 상황에 대한 어떤 언급도 없다. 처음부터 이어진 재연장면은 1화는 2분 30초까지 이어지고 이후 타이틀이 나온 후 첫 문장이 아래의 <예3>이다. 시청자들은 재연장면을 감상하고 타이틀을 보고난 후 프로그램의 배경이 어딘지 구체적으로 알게된다. 아래 <예4>는 2화에서 ‘미얀마’가 처음 언급된 문장이다. 2화의 경우 3분 50초까지 재연장면이 이어지고 타이틀이 나오고 난 후 5분이 넘어서야 ‘미얀마’가 처음 언급된다. ST는 드라마적 구성을 통해 시청자들의 극의 몰입도를 높인 후 구체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예3>

ST: 미얀마 중서부, 인레 호수에 아침이 밝았다. 해발 900미터 고산지대에 자리잡은 광활한 호수. 이제 이곳에 곧 어제와 전혀 다른 하루가 시작될 것이다. (1화: 2분 46초)

<예4>

ST: 크든 작든 불탑 하나하나에는 부처가 되고자 했던 옛사람들의 간절한 기도가 담겨있다. 그리고 아버지의 아버지로부터 어머니의 어머니로

부터 전해온 그 기도는 지금도 여전히 계속 되고 있다. 국민의 90%가 불교 신자로 부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 매일의 일상인 나라, 이 나라가 바로 지상의 불국토 미얀마다. (2화: 5분 22초)

그런데 TT에서는 재연 영상 대신 현재의 미얀마 모습을 프롤로그 영상으로 구성하고 내레이션 첫 문장에서 ‘버마’를 ‘정치적 혼란’, ‘탄압’과 함께 언급했다. ST에서 처음부터 이어지던 재연 영상은 TT에서는 1화의 경우 5분 44초에 2화는 9분 12초에 등장한다. 재연 드라마 형식을 통해 시청자의 공감대를 이끌어 낸 후 객관적 정보를 나중에 제공하는 한국식 다큐멘터리 스타일은 미국 시장에서 전면적으로 수정되었다. TT는 현재의 객관적인 사실에서 출발했으며 ‘버마’를 ‘정치적 혼란’과 ‘탄압’, ‘정변’과 나란히 제시하면서 시청자들에게 버마의 어두운 정치적 상황에 대한 정체성을 부각시킨다. 이는 ‘이름 붙이기를 통한 프레이밍’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첫 문장에서부터 ‘버마’와 함께 언급된 어두운 정치적 상황이 시청자들에게 하나의 프레임으로 작용하게 된다. 그래서 이후 TT에서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 ‘버마’가 72번 언급될 때마다 시청자들은 버마의 정치적 상황을 함께 상기하게 될 것이며 결국 ST의 내러티브는 ‘버마’가 함축하고 있는 정체성과 이미지로 리프레이밍된다.

또한 첫 문장에서 언급된 버마의 암울한 정치적 상황은 프로그램의 중심 내용인 화려한 불교 문화와 극명하게 대조되면서 시청자들의 놀라움을 배가시킨다. 정치적 탄압과 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금빛으로 화려한 불교문화를 꽃피운 미얀마는 베일에 가려져 있던 신비로운 동양의 모습이다. 이러한 대조 효과는 미얀마의 금 보시 문화를 소개하는 부분에서 비슷하게 연출된다. ST는 탐욕을 버리라는 부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 자신에게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금을 기부하는 것이 미얀마인들의 흔한 모습이라고 설명한다. 그런데 TT는 ST에 없는 ‘버마’의 ‘고질적인 가난(endemic poverty)’ 문제를 언급하면서 지속적으로 가난에 허덕이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귀한 금이 곳곳에 널려있다고 시청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왜 금을 기부하는지 그들의 문화에 대한 설명은 모두 사라지고 미국인의 시각으로 본 ‘버마’의 모습에만 초점을 맞춘다. 아시아의 가난한 나라가 온통 금빛으로 가득하다면 이 또한 서구인들의 시각에서 놀랍고도 신비로운 일일 것이다. 정리하자면 위의 예는 목표사회인 미국에서 ‘미

안마'라는 대상에 대한 미국 사회의 프레임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를 보여 주며 같은 소재를 놓고 한국과 미국의 내러티브 전개 방식과 접근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겠다.

#### 4.2. 프레임 모호성: 신화

신화는 흔히 고대의 산물로 이해되며 집단을 감화하고 움직이는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신성성'과 '권위'를 가진 이야기이다(장덕순 외 1995). 그 신성성과 권위 때문에 집단 내부의 사람들에게는 믿어야 하는 이야기로 여겨지지만 객관적인 측면에서 허구의 성격이 강하다. 천 년 전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들은 보통 허구적인 부분이 있을 것이라 예상하지만 이를 '신화'나 '전설'로 규정하면 이야기의 객관성보다는 집단에 발휘하는 영향력에 초점이 맞추어진다. 즉, 전설과 신화는 허구적 성격이 강하며 특정 집단에 힘을 갖는 신비로운 이야기이다.

사이드(Said, E.)는 오리엔탈리즘을 동양에 대한 서양의 사고방식이자 지배 방식으로 규정한다. 그는 서양이 동양을 신비롭고 새로운 곳이라고 칭하는 이면에는 서양이 권력과 지성을 이용해서 동양을 지배하고 소유하겠다는 이데올로기가 내재되어 있다고 말한다(Said 1978). 근대 서양인들에게 동양은 신비로운 상상 속의 세계였고 동시에 계몽이 필요한 후진적인 세계였다. 동양의 신비로운 세계는 서양인들이 신봉하는 이성과 과학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웠고 그 공백을 채워주는 것이 바로 '신화'이다. ST에서 한 번도 나오지 않은 '신화'라는 말은 TT에서는 40번이나 등장한다.<sup>4)</sup> TT는 번역 과정에서 모호한 상황에 대한 해석이 분명해지는 '프레임 모호성' 프레임링 방법을 통해 ST에는 드러나지 않던 사실과 허구의 경계를 강조하여 내러티브를 다시 쓰고 있다.

본고의 연구대상인 「천불천탑의 신비, 미안마」 1화는 황금으로 둘러싸인 미안마 3대 보물의 비밀에 대한 이야기이다. ST에서는 시작부터 재연장면으로 시청자의 감정입을 유도하고 이후 여성 성우가 내레이션을 이어가면서 미안마인에 대한 시청자들의 공감과 이해를 도모한다. 그러나 ST에서 처음부터 등장했던 재연장면은 TT에서 5분 이후에 등장하며 내용도 축소되었다. 또한 3대

4) TT에서 '신화'의 검색어는 총 4가지로 'myth', 'myths', 'mythology', 'mythical'이다.

보물에 관련된 이야기에 '신화에 따르면...', '전설은 이렇게 전한다' 혹은 '사실 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라는 표현을 덧붙였다. ST에서 시청자들에게 공감을 유도했던 것과는 달리 TT에서는 '신화'나 '전설'과 같은 표현을 추가함으로써 시청자들이 화면의 내용을 보다 객관적으로 바라보도록 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버마 사람들에게는 그러하다' 등의 표현을 써서 신화나 전설의 범위를 모든 시청자가 아니라 '버마 사람들'로 한정했다. 다음의 예를 살펴보자.

<예5>

ST: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사람들이 사원으로 돌아와 보니 사원 앞 물가에 수초로 뒤덮인 불상 한 기가 스스로 돌아와 있었다는 것이다. 기적 같은 일이었다.

TT: What happened next took the story to another level, making the statues even more sacred to the Burmese people. According to local legend, when people returned to the temple, in mourning of the lost statue, it appeared on the stand, wet and covered in water weeds. To the Burmese, it was a miracle.

위의 <예5>는 1회에서 파웅도우 사원이 유명해진 기원에 대한 부분이다. ST와 TT 바로 앞에 재연장면이 있는데 ST는 재연 장면에 대한 내용을 이어서 설명하면서 시청자들이 이야기 자체에 몰입하도록 한다. 그런데 TT에서는 '이야기의 그 다음 내용 때문에 버마인들에게 불상이 한층 더 신성한 존재가 되었다'며 객관화된 진술을 추가하면서 재연장면에 대한 시청자들의 감정적인 몰입을 막는다. 또한 '버마인들에게(to Burmese people)'라는 표현을 덧붙여서 파웅도우 사원이 모두에게 일반적으로 신성한 곳이 아니라 버마사람들에게만 그런 곳이라고 한정하며 시청자가 내용과 거리를 두고 객관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도록 한다. 다음 문장에서 ST는 불상 한 기가 저절로 돌아왔다는 전설 내용을 그대로 전달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TT는 문두에서 이는 사실이 아닌 '전설'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같은 맥락으로 다음 문장에서도 ST에서는 '기적 같은 일'이라고 표현했는데 TT에서는 '기적 같은 일'의 범위를 버마인으로 한정한다. 즉 시청자의 몰입과 공감을 이끌었던 ST와는 달리 TT에서는 이야기의 허구성을 강조하며 시청자와 거리 두기를 하면서 객관적으로 내레이션을 이어가고 있다.

ST의 3화에 해당하는 제작과정 촬영 필름을 보면 철저한 고증을 통해 다큐멘터리가 제작되었으며 어디까지가 사실이며 어디서부터 신화에 따른 내용인지를 알려준다. 그러나 ST는 본편에 해당하는 1, 2화에서 재연과 같은 드라마적인 요소를 전면배치하여 시청자들이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그러나 서구의 관점에서 아시아인들의 재연장면은 생경했으며 동양적인 문화요소에 쉽게 공감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런 판단에서 재연장면은 축소되고 객관적인 시점이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비슷한 예로 프랑스에서 제작한 다큐멘터리 영화 ‘팽귄: 위대한 모험’의 사례를 볼 수 있다. 이 다큐멘터리 영화는 2005년 6월 24일 뉴욕에서 개봉한 후 \$137,492의 수익을 거두어들이며 외국 다큐멘터리로서 놀라운 흥행 기록을 세웠다(황동미 2009: 169). 이는 배급사의 성공적인 전략 덕분이었는데 배급사는 원작의 주인공 팽귄이 하는 내레이션을 전면적으로 수정했다. 미국 관객이 생소한 팽귄이라는 동물에 쉽사리 감정을 이입할 수 없을 거라고 판단하고 원작 감독의 동의를 얻은 후 내레이션을 전지적 시점인 제3자로 바꾸어 쓴 것이다. 미국 시청자들의 성향을 정확히 파악한 것이 흔치않은 외국 다큐멘터리 성공의 비결이었다.

ST의 2화는 ‘버간, 위대한 왕국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방송되었고 버간 왕조의 종교 개혁 과정에 대한 내용이다. TT는 제목부터 ‘Myths and Magic(신화와 신비)’으로 바뀌었고 내용도 미안마가 왕국에서 불교국가로 성장하기까지 신화의 역할에 대한 것으로 달라졌다. ST가 최초의 국가인 버간이 탄생하기까지 불교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라면 TT는 버간이 성장하는데 신화의 역할에 대해 다루고 있다. TT는 프롤로그에서 정치적 탄압으로 알려진 버마를 소개하면서 고대 왕국을 단일 국가로 성장시킨 근원을 신화라고 말한다. 스태드너 교수는 타이틀이 나온 직후에 등장해 ‘오늘날 신화는 매우 중요하며 이 신화 때문에 이곳의 성스러운 장소가 더욱 매력적이다. 신화가 없으면 성스러움도 없다’라고 하면서 신화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2화 역시 1화와 마찬가지로 TT는 객관적인 어조를 이어간다. 현존하는 미안마 역사서인 ‘유리궁 연대기’에 대해서 ST에서는 ‘미안마 고대 역사서 유리궁 연대기’라고 짧게 언급한 데 반해 TT에서는 1분 20초를 할애해 설명한다. 이 연대기가 언제, 어떻게 작성되었으며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으며 영어 버전은 언제 나왔는지 등의 정보를 상세하게 전한다. ST에서는 ‘유리궁 연대기’에 나오는 전설과 신화의 드라마적 요소에 중

점을 두었다면 TT는 역사 다큐멘터리의 사실성과 객관성이 중요하게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TT에서 ‘신화’와 ‘전설’을 언급하면서 사실과 허구의 경계를 강조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의 예를 살펴보자.

<예6>

ST: 승려는 남쪽 땅 타톤에서 온 소승불교의 학승 신아라한이었다. 일찍이 들어 보지 못한 설법을 접한 바로 그 순간 아노야타는 이 낯선 불교를 마음으로부터 받아들이게 된다. 두 사람의 만남은 새로운 불교 국가의 서막을 여는 역사적 사건이었다. 버간의 한 사원에는 그 무렵 아노야타 시대의 불교 상황을 알려주는 단서가 아직까지 남아 있다. 당시 버간에서 유행하던 종교는 불교의 한 갈래였다. 그러나 그것은 도착 신앙과 불교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것으로 사람들은 그것을 아리 불교라고 불렀다.

TT: The monk's name was Shin Arahan, and he had just spoken the basic tenets of a branch of Buddhism called theravada. Mythology arose to explain how this kingdom became Buddhist, and it wasn't simply Buddhist. It was a very particular type of Buddhism, one that we call today Theravada Buddhism. According to mythology, Theravada Buddhism was preceded by the ari faith, a surprising flavor of religion.

위의 <예6>은 2화에서 승려 신아라한이 버간에 소승불교를 설교하는 장면이다. ST는 신아라한과 아노야타 왕과의 첫 만남을 기술하고 버간의 한 사원에 이에 대한 단서가 있다는 사실을 언급했다. 반면 TT는 ‘신화’를 문장마다 언급하면서 내러티브의 허구적인 부분을 강조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 ST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허구성이 TT에서 부각되고 이는 오리엔탈리즘의 관점에서 보자면 동양의 신비로움이 강조되는 결과로 이어진다. 허구성이 강조된 TT의 내러티브는 다음과 같이 흘러간다. 신화가 불탑을 예워싸고 있으며 그 신화 때문에 사람들은 지금도 불상에 금박을 덧바르고 있으며, 그 결과 승배의 대상인 불상은 가려지고 숨겨져 더욱 신비로워지고 여기서 새로운 신화가 탄생한다고 한다. 결국 TT는 ‘프레임의 모호성’을 이용해 미안마의 불교 유적과 불교 전파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를 신화의 중요성으로 리프레이밍했고 미안마 불교 신화의 허구성

을 강조하여 동양의 신비로운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방식으로 내러티브를 다시 썼다고 할 수 있겠다.

### 4.3. 선택적 전용: 인터뷰의 추가와 삭제

인터뷰는 다큐멘터리 장르의 고유한 특징 중 하나로 다큐멘터리의 진실성을 높이고 신뢰감을 주는 효과적인 도구이다. 제작자는 인터뷰를 통해서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내레이션으로 전달하기 어려운 감정이나 느낌까지 시청자에게 전달할 수 있다. 어떤 인터뷰를 어디에, 어떤 순서로, 또 어느 정도의 분량으로 프로그램에 배치할 것인가는 내러티브 구성에 있어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겠다. 본고의 연구대상인 「천불천탑의 신비, 미안마」의 ST는 1회에서 8번, 2회에서 9번의 인터뷰가 있었고 TT의 경우 1회에서 8번 2회에서 29번의 인터뷰가 등장했다. 텍스트 비교 분석 결과 ST의 인터뷰는 TT에서 상당 부분 삭제되고 새로운 인터뷰가 추가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선택적 전용’ 프레이밍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아래 <표3>은 ST와 TT의 인터뷰대상자 목록을 작성한 것이다. ST는 현지 일반인을 비롯해 다양한 전문가의 인터뷰를 내러티브 중간 중간에 배치하여 내러티브를 전개하는 동시에 다큐멘터리의 신뢰성을 높이려 했다. 인터뷰 대상자는 대학교수, 도서관 관장, 주지 스님 등으로 소속 기관과 직위를 통해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적지 않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었다. 그런데 TT를 살펴보면 1화의 경우 현지 일반인 인터뷰만 남기고 현지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인터뷰는 모두 삭제되었다. 대신 스태드너 (Stadtner, D.)의 인터뷰가 새롭게 등장했다. 스태드너 교수는 미국의 텍사스 대학에서 예술사를 가르치고 있으며 주요 저서로는 『성스러운 땅, 버마(Sacred Sites of Burma)』가 있다. 그는 자신의 저서에서 버마는 아시아에서 가장 신성하고 아름다운 곳이라고 하면서 현재 버마가 신성한 것은 전적으로 신화와 전설의 힘에 의존한다고 말한다. TT 2화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ST에 있었던 인터뷰가 거의 사라졌는데 유일하게 그대로 유지된 인터뷰가 있었다. 바로 허드슨(Hudson, B.) 시드니 대학교 교수의 인터뷰이다. 밥 허드슨 교수의 인터뷰가 삭제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이였을까.

<표 3> ST와 TT의 인터뷰 대상자 목록

	ST	TT
1화	우쑤원/ 양곤대 교수 우메리아/ 로카난다 사원 주지 스님 우홀라미잇/ 국제상좌부불교 대학교 교수 우툰에/ 짜잇티요 불탑 학예사 <u>현지 일반인</u>	스태드너/ 『성스러운 땅, 버마』저자 <u>현지 일반인</u>
2화	박장식/ 부산외대 교수 데이앤이앤미잇/ 불교대학도서관 관장 우모눈아웅/ 전 미안마 고고학 국장 우홀라미잇/ 국제상좌부불교 대학교 교수 <u>허드슨/ 시드니 대학교 교수</u>	스태드너/ 『성스러운 땅, 버마』저자 <u>허드슨/ 시드니 대학교 교수</u>

오리엔탈리즘에 따르면 서구는 우수하고 비서구는 열등하다는 논리를 이데올로기화하여 동양을 열등한 ‘타자’로 담론화함으로써 동양에 대한 서양의 헤게모니를 확립하는 기능을 수행한다(Said 1978). 서양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며 논리적으로 기술이 발달한 곳이며 동양은 미개하고 저급하며 동시에 신비로운 곳이라고 믿는다. 이에 따라 전문성을 갖고 지식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가 인터뷰를 동양인이 수행하는 것이 서구인들의 관점에서는 어색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특히 교육적인 기능을 갖고 있는 다큐멘터리에서 서양의 전문가가 아닌 낮은 동양의 전문가가 등장하는 포맷은 시청자들에게 다소 생경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으며 내용에 집중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또한 미국은 보수적인 성향의 사회로 다민족으로 구성된 나라이지만 영어만 사용하는 미국인이 80.3%(2000년, 미 인구통계국 기준)이다. 미국 내 외국 영화의 국적분포도 유럽, 오세아니아, 아메리카 등 서구문화권이 대부분<sup>5)</sup> (황동미 2009: 87)이다. 영어와 서양인, 서구문화권에 익숙한 그들에게 동양인이 전하는 지식보다 서양인이 전하는 정보가 더욱 설득력 있게 들릴 것이라 쉽게 예상할 수 있는 대목이다. 따라서 TT는 ‘선택적 전용’ 프레이밍을 통해 서양의 헤게모니에 들어맞는 백인 전문가인 밥 허드슨 교수만을 남기고 ST에 있던 동양 출신 전문가들의 인터뷰는 모두 삭제했다. 그리고 동양의 신비로움에 대해 저술한 스태드너 교수

5) 2003~2007년 5년간 개봉된 영화 중 총 588편, 59.86%

를 새로운 전문가로 영입했다.

인터뷰의 변경은 내러티브 전개에 변화로 이어졌다. 1화에서 우메리아 주지 스님과 우홀라미잇 교수는 보시의 의미에 대해 설명한다. 특히 우홀라미잇 교수는 ‘황금은 세상 사람들이 가장 탐내는 보물입니다... 금을 부처님께 보시하는 이유는 탐욕을 버리라는 부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함입니다’라고 하면서 불상에 금박을 붙이는 기부 행위의 의미를 설명해준다. 이를 대체한 스탠드너 교수는 TT에서 ‘금이 귀중한 것이기 때문에 바치는 것’이라고 하면서 ‘동남아 불교에서 주목할 부분은 이것이 매우 보답을 바라는 행위라는 것이다’라고 한다. 이어서 ‘이것은 마치 은행과 같아서 더 복을 쌓을수록 현생과 후생에 본인에게 돌아오는 것이다’라고 설명한다. ST는 인터뷰를 통해 금을 붙이는 보시가 개인의 욕심을 버리는 행위라 설명한 반면 TT는 금을 보시하는 것은 개인의 바람을 이루기 위한 행위라고 내러티브를 다른 방향으로 전개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ST 2화에서 박장식 교수는 소승불교의 도입을 설명하면서 ‘당시 비간은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황이었다... 정치적 세력을 규합하고 민심을 아우를 수 있는 정신적 구심점이 바로 신이라한이 가져온 소승불교다’라고 그 의의를 전한다. 그런데 TT 2화의 거의 모든 인터뷰는 스탠드너 교수로 대체되었고 그는 미안마 불교 문화에 있어서 신화의 중요성을 말했다. 스탠드너 교수의 인터뷰 내용은 ST와 상당히 거리가 있었고 기존의 영상과 ST 내용과 조화를 위해 편집과정에서 상당히 공이 들어갔던 것으로 보인다. 통상적으로 50분 다큐멘터리 기준으로 많아야 15회 인터뷰가 삽입되는데 TT 2화의 경우 인터뷰는 29번 등장했고 10초 내외의 한 두 문장으로 구성된 인터뷰도 여러 번 있다. 밥 허드슨 교수의 인터뷰 5회를 제외하면 모두 스탠드너 교수의 인터뷰이고 그의 인터뷰 내용에 따라 내러티브도 달라졌고 제목도 ‘신화와 신비(Myth and Magic)’로 변경되었다. 유럽을 비롯한 서구 문화권을 겨냥한 인터내셔널판으로 제작된 TT는 ‘선택적 전용’ 프레임에 이용해 미국의 규범과 가치관에 일치하는 내러티브는 확대하고 어색한 요소는 생략해서 ST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5. 결론

본 연구는 목표문화권의 이데올로기와 관습이 텍스트의 번역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정으로 내러티브 이론과 프레임 개념을 사용해 미국으로 수출된 한영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분석했다. 목표문화권의 이데올로기와 관습으로 인해 프레임 상에 어떤 변화가 발생하며 결과적으로 내러티브 전개와 구성에 어떤 변화를 줄지를 보기 위함이었다. 분석 결과 TT는 미안마 대신 버마를 국호로 사용하면서 ‘이름 붙이기를 통한 프레임’을 했다. TT는 버마를 사용하면서 ‘정치적 혼란’, ‘탄압’ 등과 같은 내러티브를 추가했다. 또한 TT는 ‘신화’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사실과 허구의 경계를 강조하고 신비로운 동양의 이미지를 강화했다. 이는 ‘프레임 모호성’을 사용한 사례로 해석된다. 그리고 동양인 전문가가 등장했던 ST의 인터뷰가 TT에서 삭제되고 미국인의 인터뷰가 추가된 사실은 ‘선택적 전용’으로 이해할 수 있다. 종합하자면 다른 이름을 사용하거나 특정 부분을 강조하거나 약화시키는 방식으로 TT는 ST를 리프레이밍했고 그 결과 내러티브가 변화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상기 사례의 경우 오리엔탈리즘적 시각이 이중적으로 작용했다고도 볼 수 있겠다. 서구인들의 오리엔탈리즘에 입각해서 볼 때 프로그램의 소재는 미개한 아시아의 가난한 나라인 ‘미안마’이며, 제작사는 미국보다 다큐멘터리 제작 기술에서 열등한 한국의 한 방송사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은 보다 과감한 방식으로 내러티브를 리프레이밍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스미스소니언 사는 자체 비용을 들여서라도 인터내셔널판을 제작하겠다는 제안을 내놓았고 내용과 구성에 전면적인 수정을 감행했다. 국가 간 힘의 역학관계가 일반적으로 번역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예측할 수 있었으나 이것이 사실 전달을 전제로 하는 다큐멘터리 장르에서도 예외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다큐멘터리 장르 역시 목표문화가 달라질 때 번역 과정에서 내러티브 리프레이밍이 발생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향후 다큐멘터리 번역을 내러티브 리프레이밍 관점에서 심층적으로 더 분석할 필요성이 있겠다. 한국어 다큐멘터리의 영어 번역 버전은 서구 문화가 아시아 문화, 그리고 미안마 문화를 바라보는 시각의 한 단면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서구에서 제작된 다큐멘터리가 한국어로 번역되어 방송될 때 내러티브 리프

레이밍이 발생하는지, 발생한다면 어떤 이유로, 어떤 방식으로, 또 얼마만큼인지 등 다양한 방식의 연구가 가능하다. 또한 다른 문화권이 아닌 같은 문화권 내에서도 민감한 사안을 다룬 다큐멘터리가 수출되어 번역된다면 내러티브의 프레이밍에서 어떤 변화가 생길지에 대한 추가적인 의문도 생긴다. 각국의 지정학적 위치나 입장에 따라 같은 내러티브도 다르게 프레이밍 될 수 있다고 예측할 수 있으므로 같은 소재라도 어느 국가에서 제작되고 이후 어떤 언어 방향으로 번역되는지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본 연구는 정성적 방법으로 내러티브가 어떻게 리프레이밍 되는지를 분석했으나 방대한 텍스트를 통한 정량적 분석이 필요하다. 영어뿐만 아니라 불어, 독어, 스페인어 등 다른 언어권과 문화권에서의 내러티브 리프레이밍 현상을 분석해보는 연구도 흥미로운 주제가 될 것이다. 또한 텍스트의 성격도 자연 다큐멘터리, 시사 다큐멘터리, 휴먼 다큐멘터리 등으로 확대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는 연구 대상 텍스트를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것에도 무관하지 않다. TV 프로그램 성격상 저작권의 문제로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외국에서 방송된 프로그램의 경우 접근이 더욱 제한된다. 텍스트의 확보가 향후 연구의 시작점이자 해결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번역학에서 영상물의 내러티브나 프레이밍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었다. 특히 본 연구는 번역학에서 충분히 탐구되지 않았던 다큐멘터리 영상물을 그 분석대상으로 선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또한 영한 방향이 아니라 한영 방향의 사례를 통해 동양의 내러티브가 서양에서 리프레이밍되고 재구성되는 현상을 분석했다는 점에서 차별화할 수 있겠다.

## 참고문헌

- 강수정 (2017) 「한중 번역뉴스의 프레임(Frame)에 관한 연구」, 『중국문화연구』 35: 275-301.
- 강만석 외 (1998) 『텔레비전 다큐멘터리 정착화 방안 연구』, 한국방송개발원 연구보고 98-116.
- 강승엽 (2003) 「국내 TV 자연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제작 현황과 활성화 방안

- 에 관한 연구: 국내 지상과 방송사에서 제작한 자연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현대사진영상학회논문집』 6: 49-61.
- 김가희 박은숙 (2014) 「한국관련 내외신기사의 제목 및 내러티브 비교분석- 미군 성폭력사건 관련 기사를 중심으로」, 『영어권문화연구』 7(1): 93-119.
- 김기영 (2013) 「내러티브를 통해 살펴본 국제뉴스 현지화 현상: 한미FTA 관련 뉴스 사례분석」, 『번역학연구』 14(2): 39-63.
- 김균 정규찬 (2003) 『다큐멘터리와 역사』, 서울: 한울 아카데미.
- 김기범 (2012. 7. 24) 「버마야? 미안마야?」, 『경향신문』, 2018년 12월 10일 검색.
- 김순미 (2013) 「번역 텍스트 내의 정치적 내러티브 리프레이밍 — CNN의 ‘아랍의 봄’ 보도 번역을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14(2): 65-102.
- 김훈순 (2000) 「영상매체의 역사쓰기-KBS 역사스페셜」, 한국방송진흥원 『프로그램/텍스트』, 3호.
- 박종진 (2016) 「「왕자와 제비」에 나타난 방정환의 내러티브 —번역과 서사 변형의 특징」, 『한국아동문학연구』 30: 97-125.
- 박홍규 옮김 (1991) 『오리엔탈리즘』, 서울: 교보문고. (Said, Edward W. 1978, *Orientalism*).
- 방정환 (1928) 『사랑의 선물』, 서울: 개벽사.
- 백선기 (2001) 『텔레비전 문화의 기호학』,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사회만 외 (2005) 「아랍어 위성방송 알 자지라와 BBC 및 CNN 방송의 비교 분석 —이라크 전쟁 보도를 중심으로」, 『지중해지역연구』 7(1): 277-339.
- 안미현 (2016) ‘Translation Matters of Narrative Structure in German Contemporary Novels: A Case of W. G. Sebald’, 『통번역학연구』 20(2): 177-196.
- 안정임 옮김 (1997) 『다큐멘터리 기획에서 제작까지』, 한국방송개발원. (Rosental, Alan. 1990 *Writing, Directing and Producing Documentary Films and Videos*).
- 원용진 (1996) 「사회적 장르로서의 다큐멘터리」, 『방송개발』, 봄/여름호.
- 이선화 옮김 (2005) 『다큐멘터리입문』, 서울: 한울 아카데미.(Nichols, Bill. 2001, *Introduction to Documentary*).
- 이중수 (1999) 「텔레비전 역사다큐멘터리의 목소리」, 『방송연구』, 통권 48호.
- 이중수 (2000) 「영상다큐멘터리 역사재현의 현실성과 표현성」, 『한국언론학보』

- 통권 48호.
- 이지영 (2016) 「문학번역의 결텍스트 리프레이밍: 소설 『허삼관매혈기』를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17(5): 201-232.
- 이춘우 (2015. 5. 14) 「EBS 다큐프라임 「천불천탑의 신비, 미안마」 18일부터 방송」, 『부산일보』, 2018년 11월 30일 검색.
- 장덕순 외 (1995) 『구비문학개설: 구비전승의 한국문학적 고찰』, 서울: 일조각.
- 전규태 (1991) 『한국고전문학대계 소설집1』, 서울: 명문당, 429-446.
- 정재엽 최낙진 (2010) 「중앙방송과 지역방송의 TV 다큐멘터리 비교 연구: ‘제주 고대사’, ‘탐라순력도’의 이야기 전개 및 내레이션 분석」, 『사회과학연구』 21(4): 191-194.
- 최양목 (2003) 『텔레비전 다큐멘터리 제작론』, 서울: 한울아카데미.
- 최양목 주창윤 (2003) 『텔레비전 화면개기』, 서울: 한울아카데미.
- 황동미 (2009) 『한국영화 미국시장 진출 유형 연구』, 서울: 영화진흥위원회.
- Baker, Mona (2006) *Translation and Conflict: A Narrative Account*,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Dubatti, Barkuzar & Abudayeh, Haneen (2018) ‘The translator as an activist: reframing conflict in the Arabic translation of Sacco’s Footnotes in Gaza’, *Translator* 24(2): 147-165.
- Genette, Gérard (1972) *Figure III*, Paris: Poétique.
- Genette, Gérard (1987) *Paratexts: Thresholds of Interpretation*, New York: Cambridge.
- Goffman, Erving (1986) *Frame Analysis: An essay on the Organization of Experience*, Boston: Northeastern University Press.
- Grierson, John (1971) *Grierson on Documentary*. Forsyth Hardy (ed.) New York: Praeger.
- Hall, Stuart (1982) ‘The rediscovery of ‘ideology’: Return of the repressed in media studies.’ In M. Gurevitch, T. Bennett & J. Curran (Eds.), *Culture, Society and the Media*, New York: Methuen, 57-90.
- Hartley, John (1982) *Understanding News*, London: Methuen.
- Jeong, In Sob (1952/1970) *Folk Tales from Korea*. Seoul: Hollym International Corp, 201-207.
- Kim, Kyung Hye (2016) ‘Reframing the Victims of WWII through Translation-So far from the Bamboo Grove and Yoko Iyagi’, *Target* 29(1): 87-109.
- Lee, Peter (2016) ‘Narrative Changes in Abridged Translation: “The Two Sisters, Rose and Lotus” in Folk Tales from Korea’, 『통번역학연구』 20(4): 283-300.
- Nael, Hijo (2017) ‘The Paratextual Analysis of English Translations of Arabic Media Narratives on Daesh’, *The Southeast Asian Journal of English Language Studies* 23(3): 21-36.
- Oscar, Wilde (1988) *The Happy Prince*, Boston: Roberts.
- Prince, Gerald (1987) *A Dictionary of Narratology*, London: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 Sacco Joe (2010) *Footnotes in Gaza*, London: Vintage Publishing.
- Stadtner, Donald (2011) *Sacred Sites of Burma: Myth and Folklore in an Evolving Spiritual Realm*, London: Elizabeth Howard Moore.
- Tymoczko, Maria (1999) *Translation in a Postcolonial Context*, Manchester UK: St. Jerome Publishing.
- Qin, Binjian & Zhang, Meifang (2018) ‘Reframing Translated News for Target Readers: A Narrative Account of News Translation in Snowden’s Discourses’, *Perspectives: Studies in Translatology* 26(2): 261-276.
- Wu, Xiaoping (2018) ‘Framing, Reframing and the Transformation of Stance in News Translation: A Case Study of the Translation of News on the China-Japan Dispute’, *Language and Intercultural Communication* 18(2): 257-274.
- Zhang, Meifang (2013) ‘Stance and Mediation in Transediting News Headlines as Paratexts’, *Perspectives: Studies in Translatology* 21(3): 396-411.
- 齋藤佐次郎 & 横山壽篤 (1920) 『金の船』 2(5).

[Abstract]

**Narrative Reframing of Dubbed TV Documentary Translation  
from Korean to English**

Jo, Yunsil  
(Pusan National University)

This research studies framing strategies in the English version of dubbed Korean TV documentaries on shrines of Myanmar. It analyzes two episodes of TV documentary which were aired on Korea Educational Broadcasting System (EBS) in 2016 and their English versions. The documentary programs were exported to Smithsonian Channel in the United States. Drawing on Mona Baker's narrative analysis model(2006) and Gérard Genette's framing concept(1997), this study compares and examines images, narration text and captions and paratexts of Korean episodes and their translated English versions. The research results show that even though the images are same, the construction and contents of narratives are changed and reframed according to norms and ideology of target culture. For instance, the name of a country 'Myanmar' are all changed into 'Burma' in the episodes including titles. The English version holding the U.S. norm on the nation that most Americans are familiar with 'Burma' not 'Myanmar.' Also, Korean documentaries include a number of interviewees who are Asian professors, a chief monk, a librarian and so on. In English versions, however, only one interview with an Australian is the same with the original program and the other interviews are all deleted and substituted with another Westerner.

▶ Keywords: Documentary Translation, Dubbing Translation, Narrative Reframing, Narration Translation, Translation Norms.

▶ 주제어: 다큐멘터리 번역, 더빙 번역, 내러티브 리프레이밍, 내레이션 번역, 번역 규범

조윤실

부산대학교 영어영문학과 박사과정

yunsiljo0202@gmail.com

관심분야: 영상번역, 다큐멘터리 번역, 번역과 이데올로기

논문투고일: 2019년 2월 10일

심사완료일: 2019년 3월 11일

게재확정일: 2019년 3월 19일